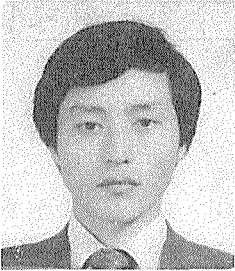


國際石油情勢와 油價政策方向



鄭 萬 源

〈動力資源部 油政課·行政事務官〉

I. 序 言

81年 中半期 以後 世界原油市場은 그 출렁임을 그치고 내 冊床 위에는 原油價引下表가 놓여지기 시작했고, 더불어 油政課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찾아 들었다.

그 여세를 몰아 말도 많고 論難도 많았던 原油價 平準化制度를 지난 3月11日字로 廢止함에 따라 64年 國內油價를 最初 告示한 以來 기세당당하게 솟아오르던 國內油價는 처음으로 그 덩미를 잡혀 2.82%의 油價引下를 斷行할 수 있었다.

82年들어 80년 1월 29일의 59.43%의 油價引上後부터 學論 되어온 諸般 油價制度改善의 總 決算이 油價自律化란 單語로 거침없이 터져 나왔고, 需給安定과 價格安定이라는 二律背反的인 政策課題의 均衡을 圖謀하면서 精油業에 競爭原理를 導入하고, 또한 龍頭蛇尾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苦心의 作業이 油價担当者, 研究所 및

斯界 專門家들 사이에 이루어져 왔다.

이 作業속에 있으면서 혹시나 油價引上作業에 지친 나머지 도피하기 위한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이도 되뇌여 왔고, 代案없는 問題點提示에 열을 올리기도 해 보았으나, 적어도 國內油價調整의 一席을 차지하고 있는 '實務第一陣'으로서의 마음을 열어놓고 만천하에 公開하고 싶은 慾求가 불쑥불쑥 찾아오곤 했다.

油價는 怪物이다. 그 構造가 기묘묘하게 複雜하여서가 아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이다. 온갖 社會現象을 數字化하여 한 두자리 數字로 表示해 내는 過程에서 우린 늘 외롭다.

英國의 石油政策担当者에게 『당身네 나라에서는 왜 油價를 統制하지 않느냐?』고 물어 봤을 때, 『왜 統制를 해야하느냐?』는 反問은 含蓄的이면서도 가장 正確한 答辨이었다.

分明히 價格規制를 풀어야 하는 原理를 알면서도 풀기에는

莫然한 不安感이 있다는 것이다. 너무 斷言했나?

따라서 本欄은 왜 政府가 價格規制를 풀려고 하는지, 풀다면 대체 어떤 代案을 가지고 벌어진 事態에 対処하려고 하는지를 簡略히 짚고 넘어가는 程度로 記述하고자 한다.

II. 國際石油情勢

國際油價 및 國際原油需給의 앞 날에 對한 專門家들의 意見은 百人百色이다.

第3次 石油波動이 닥칠 것이라는 見解를 피력하는 이들의 論點을 살펴보면, 中東地域의 政情不安이외에도 大略 다음과 같은 要因으로 大別된다.

첫째, 石油需要의 減退는 現在의 世界景氣不況때문이며, 經濟가 回復되면 다시 從前의 水準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며,

둘째, 高油價는 長期的인 石油需要, 特別히 世界原油消費의 2/3를 차지하는 난방용연료의 需要를 蚕食시킨다고 하나 原

油의 主要 代替源은 人工燃料이며, 現在 石炭의 액화等 人工燃料의 開發은 積極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또한 OECD의 石油需要는 減少한다 하더라도 低開發國의 石油需要는 계속 急激히 늘어 날 것이며, 80年代 後半에는 소련을 비롯한 東歐圈이 石油輸入國으로 反轉될 것 이란 點이다.

넷째 石炭價格이 石油價格水準만큼 오르리라는 點을 指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反박은 또 한 다음과 같다. 즉,

첫째, 日本은 最近 GNP는 成長하면서도 石油消費는 減少되고 있으며,

둘째, 低開發國의 石油需要가 事實상 늘어나는 疑問이며,

셋째, 原油의 主要代替源으로 보다 싼 石油代替物이 많이 등장 實用化 되어있고,

넷째, 石炭價格은 國際市場에서 競爭에 依해 決定되며, 매장량의 追加發見可能性도 매우 높은 點들을 들고있다.

이러한 中長期 世界原油市場의 動向은 쉽게 捉摸할 수 는 없으나, 당분간 原油價格이 現行 水準을 유지하거나 多少 引下될 것 이라는 展望에는 大部分 一致하고 있다.

이를 좀더 부연하여 보면, 原油需要는 消費國의 長期的인 景氣沈滯와 油類消費節約等으로 81年中 79年 對比 9.8%가 減退되었으 며, OPEC가 82年 3月19日 第63次 特別會議以後

〈表-1〉 自由世界 石油需給展望

(單位: 百萬b/d)

	81	82	85	90
需 要	46.8	46.2	49.0	51.5
O E C D	35.4	34.6	35.6	36.5
其 他	11.4	11.6	13.4	15.0
非 OPEC 供給 ¹⁾	22.6	24.0	24.3	25.7
OPEC 供給所要量 ²⁾	24.2	22.2	24.7	25.8

註: 1) 共產圈으로 부터의 純輸入包含

2) OPEC生産能力: 3,300萬B/D

生産上限線을 設定, 供給過剩을 解消하기 위해 人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先進國의 持續的인 在庫放出等으로 80年以後 繼續 供給過剩狀態를 持續하고 있으며, 이러한 供給過剩趨勢는 當分間 持續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CIA等이 修正見解를 表明하고 있으므로 多少의 需要增加에도 不拘하고 原油需給은 安定勢를 維持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Ⅲ. 油價政策方向

1. 油價管理制度的 評價.

石油政策의 基本課題는 二律背反的인 需給安定과 價格安定과의 調和에 있다. 需給安定을 위하여는 原油의 長期安定導入基盤을 構築하고 導入先을 多邊化하며, 石油備蓄을 擴大하고 油種間價格을 國際價格 構造로 接近시킴으로써 重質油分解施設 設備를 誘引하여 電力의 脫石油 및 시멘트社의 脫B-C油에 依한 剩餘B-C油의 處理를 可能케 하여 需給均衡을 圖謀해야 하는 것이나 價格安定을 爲하여는 低廉한 Spot市場을 積極 活用하고, 中美等 低價原油를 重點 導入하며, 石油備蓄의 最少化로 在庫管理費用을 줄이고, 市場經濟原理의 導入으로 油價의 7.5%를 抑制하는 金融費用을 줄이도록 誘引해야 하는 것이다. 政府가

〈表-2〉 메이저의 自由世界 石油 需要展望

(單位: 百萬b/d)

社 別	1985年	1990年
TEXACO	52	54~55
SOCAL	49.3	51.3
BP	50~51	51
SHELL	48	50~52
EXXON	54	55
平 均	50.7	52.5

資料: Asian Wall Street Journal (82. 1. 29)

이에는 自由世界의 實質經濟 成長率이 83~86年間 年3.4% 水準에 이르러 世界經濟의 回復에 따른 原油需要의 增大가 83年以後 緩慢하게 이루어 질 것이나, 非OPEC 生産原油가 꾸준히 增加할 것으로 보이고 소련이 86年以後 原油輸入國으로 轉換될 可能性에 對하여 美

64年以後 石油製品價格을 直接統制하고 連產品인 石油製品別一時 需給不均衡을 解消하기 爲하여 實施하여온 石油製品需出入 統制는 이 땅에 精油産業이 純粹 內國資本이 아닌 메이저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點과 취약한 國內 消費構造, 1 배럴 당 2 달러未滿水準이었던 原油 價等을 勘案하고 物價管理가 直接인 事前規制였었다는 點에서 그 意義를 찾을수 있으며, 그 效果는 大略 다음과 같이 大別할 수 있겠다.

- ① 獨寡占下에서의 價格不當 引上防止
- ② 價格變動時點 調整으로 靜態의 物價管理를 可能케 함
- ③ 나프타 및 燈·輕油의 低價維持로 취약산업 保護 및 民生安定에 寄與
- ④ 石油類 需給安定에 寄與

그러나 第2次 石油波動에 따른 原油價의 急騰으로 需給安定보다는 價格安定에 石油政策의 主眼點이 놓여지고, 4 次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에 따른 우리 經濟의 量的, 質的 成長으로 年間 賣出額이 6兆원에 이르는 石油製品價格에 對한 政府의 直接統制가 그 限界를 露呈하게 되고, 政府가 精油社의 損益에 直接 關与함으로써 精油社損益의 責任은 經營者보다는 政府에 있다는 構造인 予循과 第2次 石油波動에 따른 物價調整의 累積, 大幅引上으로 精油等은 財務構造의 취약을 감수한채 유전스 使用日을 延長, 資金壓迫에 對處하여 오는 構造的 矛盾을 內包하게 되었다.

이는 窮極的으로 國內油價에의 反映이 不可避하여 當初 長期安定的인 價格維持를 爲하여 施實되어온 油價의 直接統制方式이 앞으로는 그 實効性을 喪失하게 되는 直接要因이 되는 것이다.

또한 政府의 製品價格의 直接 決定에 따라 價格調整의 硬直性으로 一時, 大幅引上이 不可避하여 經濟에의 衝激이 감내할 수 없을 程度로 크며, 政策的인 油種間 價格構造 維持로 附加價値가 큰 B-C油等이 高價에 策定되어 産業構造를 歪曲시키고 86年以後의 石油需給에 큰 蹉跌을 招來할 不可性이 매우 커졌다는 點이다. 그理由는 經濟規模가 커질 수록 輕質油需要가 相對的으로 增大되므로 國際B-C油는 現在도 供給過剩狀態이나 電力의 脫 石油化로 앞으로 國內 B-C油의 殘量處理가 相當한 問題點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點이다.

그러나 이의 단 하나의 代案인 重質油分解施設(Cracking)을 設置하기 爲하여는 精油工場보다 建設單價가 2배가량 所要되는 바, 이를 誘引할 수 있는 價格構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B-C油를 投入, 輕質油인 나프타, 燈油, 輕油等을 生産해야 하는데, 現在는 B-C油 價格이 나프타보다 오히려 비싸고 燈油, 輕油와 價格差異가 別로 안나므로 이러한 施設設置가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더우기 國內油價의 約88%가량이 原油價인바, 이러한 原油價가 原油別 產出製品量에 國際

製品價格(페르시아灣價格)을 乘한·販買收益 差異가 反映되어 있으므로 油種間 價格構造는 國際價格 構造가 反映 되어야 하는 것이다.

原油導入先多邊化對象地域의 原油는 大部分 高質高價인바 國內油種間 價格構造의 國際化는 곧 導入先多邊化 誘引의 一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行 油價管理制度의 問題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민간기업의 損益에 政府가 直接 介入함으로써 경쟁原理에 立脚한 企業經營이 어려워지고,
- ② 民間企業의 製品價格을 政府가 直接決定함으로써 價格調整의 硬直性으로 長期的인 價格安定에 沮害요인이 되고 있으며,
- ③ 政府의 價格決定으로 政策事項 考慮가 不可避하여 油種間 價格構造의 歪曲에 따른 不作用이 發生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問題點은 早期에 改善하여야 하며, 지연시 더욱 큰 問題를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그間 經濟, 社會 環境의 變化로 우리 經濟가 民間主導型 經濟運用基調로 轉換되고 價格管理도 事前規制에서 事後指導로 轉換되었으며, 社會環境의 開放·國際化로 民間의 自律能力이 向上되고 있다는 點도 重要한 背景이 되겠다.

2. 油價管理制度改善의 基本 方向

序頭에서 밝힌 바와같이, 油

價制度改善은 需給安定이 沮害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政府의 直接統制方式을 間接規制方式으로 轉換시켜 油價의 直接統制 및 輸出入統制를 함께 解除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精油社의 資金圧迫 및 販買競争等에 거의 만능으로 作用해 온 유전스를 自律規制케 하고, 第2次 石油波動以後 沈滯局面을 맞고 있는 世界의 精油業의 自活策 講究와 같은 經營意識을 고취시키는 한편, 油價의 適時調整으로 不必要한 引上要因의 累積을 防止하자는 데 그 目的이 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與件과 制約이다.

즉 경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原油市場, 精油産業 및 流通業체의 寡點 및 취약성, 石油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미미한 점, 國際石油去來의 經驗과 能力 취약等이다.

이러한 與件을 綜合, 考慮하여 制度改善의 基本方向은 原則적으로 市場經濟 原理에 立刻한 油價管理를 圖謀하고, 制度改善에 따른 經濟社會의 衝激을 最少化하기 위하여 段階적으로 施行하되, 경쟁제한요인의 최소화로 자율경쟁여건을 조성하고 價格構造의 國際化로 에너지價格의 中立性을 維持하며 政府의 最終적이고 最少限의 統制 調整機能을 留保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3. 油價管理制度 改善方案

가. 油價의 自動反映制 實施

이를 爲하여는 優先 油價의 87.7%를 占하는 元貨表示 原油價에 一定한 引上要因이 發生할 境遇, 自動적으로 引上되도록 하는 原油價 및 換率上昇分의 自動反映制를 實施하여, 國內油價調整이 原油價 以外에 換率에 依하여도 相當한 要因을 갖는다는 事實을 周知시킬 必要가 있겠다. 다만 殘餘 12.3%에 達하는 原油導入 金融費와 精製費는 年1回 調整하여 製品輸出入에 依한 要因等을 勘案, 油價의 過多, 또는 過少反映에 따른 精油社의 損益差異를 緩和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事實 이러한 費用은 一定 期間을 設定하지 않는 限, 算出이 不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原油價, 換率의 自動反映制는 理在의 統制價格下에서 波生되는 問題點의 一部를 解消하고 油價管理制度 改善以前의 緩衝段階 役割을 可能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油價管理의 間接規制方式으로의 轉換

바람직한 油價管理制度는 獨寡占 廢害가 誘發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市場自律機能으로 轉換되는 것이므로 事業者가 油價를 스스로 決定케 하고 政府는 事後指導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制度는 自치 制度施行以後에 統制範圍를 넓혀 결국 龍頭蛇尾가 되기도 쉽다. 따라서 우리의 與件과 制約을 考慮하고, 價格談合 및 不當引上防止와 競爭原理間의 調和를 爲하여 不可抗力의 人 要

因(原油價, 換率, 유전스利子率)의 變動範圍를 이탈하여 油價調整時는 政府가 介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스 使用期間은 標準期間을 定하여 實際使用期間과 關係없이 適用하여, 유전스 使用을 漸進적으로 줄이도록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原則적으로 石油製品輸出入自由化를 價格不當 引上을 防止하는 制度的 裝置로 하되, 精油産業事業基盤의 存續을 爲하고 現物市場이 剩餘物量處分市場인 점을 勘案, 製品導入 關稅 및 基金을 彈力的으로 運用함으로써 直接的인 政府介入보다는 間接적인 規制로 價格不當引上に 対処해야 할 것이다.

앞의 國際石油情勢에서 살펴 보았듯이 急激한 原油市場의 混亂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國際原油價가 多元化될 경우 原油價平準化制度를 다시 導入하여 対処할 수 있으므로 原油市場의 安定이 곧 價格管理制度와 直結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이 외에도, 原油의 長期安定確保를 爲한 所要措置 油種間 價格構造의 變化에 따른 補完對策, 그리고 流通構造의 改編等이 부수적으로 補完되어야 할 課題인 것이다*

